전남 4곳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선정

순천고들빼기·곡성 항꾸네 강진된장·순천송광두부 행안부 사업비 7000만원·1억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세대를 유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지역 4개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 '2023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에 선정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곡성 항꾸네협동조합이 '우수 마을기업'에,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과 순천송광(주)이 '모두애 마을기업'에 각각 뽑혔다.

'우수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며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은 개별 농가에서 생산·판매하던 지역 특산물 고들빼기를 공동 수매·출하하고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을 농가 소득을 높였다. 또 마을축제인 고들빼기 축제를 개최하고 기업 수익금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마을을 하나로 묶는 데 앞장섰다.

농사의 가치 제고와 마을공동체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곡성 항꾸네협동조합은 1년 청년 귀농 과정과 벼농사 품앗이, 마을영화제, 마을도서관, 농촌직업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 13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두애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제품 브랜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을 말한다. 선정 기업엔 최대 1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된다.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은 자연균으로 제조하는 독창적 장류 기술을 바탕으로 매년 20억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농업 기술 습득을 지원해 마을에 활력소를 톡톡히 불어넣고 있다.

순천 송광사 스님들도 구매하는 순천송광(주) 두부는 지역에선 이미 명물이다. 마을 대다수 주민이 기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며 연 14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마을기업은 300여 개로, 농수산물, 특산품, 관광·문화, 사회서비스 등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에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세대를 유입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과 주민의 창의적 도전이 어우러져 지역을 되살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마을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마을기업이 창립 초기 기틀을 단단히 다지도록 '전남형 마을기업' 20개소를 선정,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을기업 홍보와 제품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도서지역 과학문화 드림캠프

암태도 학생·주민 체험 프로그램

(재)전남테크노파크이 지난 19일 신안군 암태도 초등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전남 과학문화 드림캠프를 신안군 암태초교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번 드림캠프는 전남의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과학기술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목포대와 함께 이공계분야 전문 교육과 렌티큘러 액자, 3D펜, 물 오호, 물 분수, 과학마술쇼, 소감나누기 등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과학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속적인 과학문화 활동과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지역민이 과학문화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탑솔라와 풍력발전단지 개발 협약

공동사업·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녹에연)이 지난 22일 국내 풍력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탑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오형석 탑솔라 주식회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녹에연과 탑솔라는 풍력 발전단지 개발 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공동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 시설 및 자원의 공동 활용, 기술 확산을 위한 학술교류와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녹에연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의 세계 해상풍력 중심지 육성 정책이 탄력받게 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및 군 작전성 기준 개선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부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동식 원장은 "풍력 발전단지 분야 산-연 간 업무협약으로 관련사업 뿐만 아니라 전남도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사업 기획 및 공동 연구과제 추진 등으로 해상풍력 제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녹에연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산림자원연, 밀원단지 실증연구 토론회

해남서…특화림 관리 등 논의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 22일 해남 마산면 밀원자원 연구 시험지에서 '남부권역 밀원단지 조성 실증연구 현장 토론회'를 열어 생산성 증대와 소득 창출을 위한 밀원단지 효율적 배치·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산림과학원,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 국립농업과학원 등이 참석해 전남지역 밀원숲 시험림 조성 현황을 공유하고 밀원특화림 임분 관리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근 꿀벌산업은 사육 농가와 규모가 늘고 있으나 봄철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주요 밀원 자원의 개화 시기가 짧아져 꿀벌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꿀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후환경에 적합한 밀원숲을 확대 조성하고 있지만 적지·적수 선정 및 식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해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등 산림 관련 공동연구기관은 임분밀도에 따른 밀원 생산성 평가와 난대수종 중 유망한 신규 밀원자원 발굴을 위해 해남 도유림에 2ha 규모의 시험림을 조성했다. 조성 수종은 꿀 생산량이 많은 쉬나무, 이나무와 양봉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아까시나무다.

시험림에는 아까시나무, 쉬나무, 이나무의 밀도 조절을 달리해 심었으며 심는 간격에 따른 활착률과 생장 특성을 조사해 남부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고정양봉을 위한 재배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밀원 수종 산지 시험림은 2023년부터 향후 8년간 국립산림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다부처사업으로 진행된다. 연차별 다양한 밀원수종 대단위 실증연구 시험림을 조성해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우수한 밀원자원 발굴과 밀원 숲을 조성하면 꿀벌산업과 생태계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밀원단지의 효율적 배치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밀원 생산성 증대와 안정적 소득창출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수과학원,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 박차

비알팜과 수산생물산업 업무협약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비알팜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의약품·식품 개발 등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어·송어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김석순 ㈜비알팜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어·송어 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원료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과학원은 의약용 원료 및 식품 개발 등에 필요한 연어과 어류 등 해양수산자원 공급과 전남지역 양식시설 건립, 연어과 어류 양식 기술 지도에 나선다. 비알팜은 공동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공장 및 부설연구소 등 관련시설 건립 시 전남지역에 우선 건립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6년부터 해수순환여과식 방법을 활용한 연어과 어류 양식기술을 연구해 고수온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는 연중 양식 생산에 성공했으며 어업인 등 민간 기술보급 등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다.

비알팜은 2017년 11월 고흥에 의약재료용 바다송어 연어 양식장을 준공했으며 매년 연어과 어류를 1만~2만 마리를 입식해 본격적인 의약원료 생물 양식을 하고 있다. 특히 연어과어류를 식품, 의약용 원료, 프리미엄어묵, 애완동물 음식으로 활용 분야를 다양화하고 관련 분야 가공시설과 양식 종자생산 시설 등을 추가로 건립할 방침이다.

연어류 정소 등 연간 의약품원료 수요는 30~50t 내외로 이 가운데 10% 정도는 자가 생산하고 90%는 양식어가에 의뢰해 공급받을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정액과 정소는 피부 재생 치료제, 점안액, 관절, 탈모 치료제 등 재생의학 원료로 사용되며 부산물은 애완동물 식품 원료로 활용된다. 연어과 어류의 정액과 정소로 만든 재생의약품 원료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제약사 간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해설사 8명 모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이 오는 30일까지 비엔날레 기간 국내외 관람객에게 수묵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할 전시해설사(도슨트)를 공개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미술 관련 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미술작가, 전시해설사 등이다. 전시해설사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소통 가능자는 우대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8명을 선발한다. 8월 기초 및 시화·현장교육 등을 진행하며 이들에겐 활동지원비와 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시해설사는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전문 전시 해설 서비스를 통해 전시작품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

모집 관련 신청서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www.sumukbiennale.kr)와 전남문화재단(www.jnc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